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図録を通して「2002年ソウルスタイル」を覗く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洪, 賢秀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75

図録を通して「2002年ソウルスタイル」を覗く

洪 賢秀

1 はじめに

2002年は、「ニッポン・チャ、チャ、チャ」や「デ〜ハンミングッ」というサポーターの声が耳鳴りのようになかなか耳元を離れない年であった。このW杯サッカーの日韓共同開催を契機に「日韓国民交流年」として未だかつてない多様な日韓交流が行われた年でもあった。国際交流基金の『日韓文化交流基金NEWS』に掲載されている「日韓文化交流史年表」によると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関連行事は1990-2000年において年々増加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しかし、このような様々な交流をどのように評価し、今後の日韓交流をどのように方向付けるのかは単純な問題ではない。どの側面から眺めるかによって当然ながら見え隠れする多くの問題を孕んでいるからである。

ともあれ、日韓交流ブームのなか、文化的交流を目指した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いて特別展が開催された。従来の異文化表象の雛型から脱皮し、考現学と生活財生態学の方法論を用いた「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展示や日韓交流のあり方に新たな方向性を示めてくれた。展示側の意図的なサンプリングによる表象ではなく、李さん一家の3200点というものを家の空間的文脈から切り離さずにそのまま、本来の文脈に近いリアリティを持たせた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参加型展示は来館者に李さん一家を丸ごと、また思う存分、五感で感じ取れるようなリアリティをもたせたかつてなかった異例の体験を提供した。この展示において、個々の展示物や展示空間にある諸々の関係性と重層性を提示したのが解説書『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暮らし』である。この図録には生活財調査方法の過程とその意味が明示されている。従って、展示をみるだけでは読み取りにくい調査過程とその分類方法が図録を通して吟味することで明らかになるだろう。展示物には個人、社会、空間、時間などの諸関係性が凝縮され表象されている。一方、図録はその「もの」に見え隠れする凝縮された諸関係性を解凍し、相対的かつ総合的に捉えなおすことを容易にしてくれる。

展示開催に向けて行われた共同研究会を通して、展示過程にわずかながら関わ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経験は韓国文化の教育に携わる者としてどのように生かせ、還元できるのだろうか。以上のような問題意識を踏まえ、本稿では特別展の図録を教育の現場で異文化理解のテキストとしていかに活用できるか、その可能性について検討したい。

異文化理解のテキストの対象として「特別展」の図録を取りあげる理由は以下の通りである。①現代韓国の生活文化をテーマとした「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日韓の文化的交流の一環として開催された。文化表象としての展示は、時代性、地域性、政治性、

特殊性、普遍性などの諸概念が凝縮されているため、それらを読み解く素材として有効であると考えられるので、この表象から現代日本における韓国との交流のあり方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②博物館の誕生とともに展示場は「もの」を媒介にした、開かれた教育現場として認識され、活用されてきた。しかし、博物館における展示は空間的・時間的限界をもつものであることは免れ得ない。図1は展示を媒介にした教育活動の可能性についてまとめたものである。ここで問題になるのは来館でき展示を体験した者ではなく、来館したいが何らかの諸理由で来館できない者をどのようにフォロー・アップできるかという点である。このようなフォロー・アップのために展示資料を用いた教育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この点において、展示図録の使用可能性がみえてくる。

2 展示を教育の場でいかに利用できるのか

それでは、韓国文化を教えるという教育の現場で展示図録をテキストとして試用した事例を基にその可能性を考察したい。筆者は3年間、東京近郊の四年制大学で韓国文化についての講義を担当してきた。国際経済学科の3、4年生を対象としたこの講義は、オムニバス式の異文化理解の入門講座である。今年度は、中国、ポーランド、ロシア、フランス、南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南アジア、そして韓国を対象に各2回の講義スケジュールになっていた。2回という限られた時間で韓国文化を紹介することは厳しい設定といえる。これまでは筆者の研究領域である韓国の家族関係と映画にみられる民族主義の表象などを中心に話をしてきた。しかし、2002年度はW杯サッカーの日韓共同開催にともない特別展が開催されるという時期的タイミングも重なり、「特別展」を取りあげることとなった。展示場には時間的・空間的制約があるため、講義の一環として展示場を訪れる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そこで展示の解説書である図録の資料を実物投影機に映し、紙芝居方式で展示の疑似体験的な講義を行うことにした。

3 凝縮された「もの」の表象とそれを読み解くための「もの」

展示のテキスト化には、以下のような制約が考えられた。まず、展示、図録において意図されたものとは異なる文脈が生じたことである。展示では「もの」に何を語らせるかが想定され、展示物が選択されていく。「もの」を中心に空間づくりがなされる。

「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では展示場の中心にスタッフによる綿密な記録・調査に基づき、李さん一家の空間がそのまま再現された(詳細な構図は図録参照)。展示場は1階の中心部、1階の周辺部、2階、地下、前庭の5つの空間が配置されている。

1階の中心部にある李さん一家の私的空間を放射線状に、家族個々人が関わる外におけ

る日常の公的空間に広がっ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空間は2階において現代の韓国社会の象徴的な場と「一生」という時間軸における空間が設けられた。李さん一家の展示をフォロー・アップする形で周辺、2階、地下のみんなくシヂャン（市場）、そして前庭のマダン（広場）の空間が意味付け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博物館の空間という文脈は李さん一家を現代という限定された時代と特定個人の一家であることを認識させるための相対的効果を匂わせている。

このような展示場の文脈は、図録では紙面という空間を通して李さん一家の生活財がどのように使われているのか日常の写真を用いて表わしており、これをさらに32のコラムで現代韓国社会の状況を補足・相対化させている。ここでは実際のソウルにあるアパートの空間が展示場へ、一方では図録の紙面へ、そして、さらに一教室の実物投影機へと元の文脈から何回も置き換えられている。特に教室という文脈のなかに置かれたことで李さん一家の生活財は異なった意味を発信するようになった。

「韓国文化」の講義においては図録の資料に基づき話を展開させた。しかし、講義内容は、李さんという一個人の事例から韓国の家族構造の特徴に焦点を絞ることになり、この点、展示の主旨とは異なった。言い換えると、前述したように展示・図録では、その「もの」に特定の個人との関わりが凝縮されたまま表象されており、その凝縮された意味を読み解く糸口を周辺の展示またはコラムや日常の写真などの「もの」から得られるように配置されている。これに対し、講義では事例としての生活財は「もの」を通して読み解かれるのではなく講義を行う媒介としての「言葉」を通して読み解かれるのである。そのため、展示と図録とは全くことなつた状況が生じるのである。また、今回の講義内容では生活財を通して家族構造を覗くように方向付けたため、「もの」に見え隠れする凝縮されたさまざまな意味を一つの側面においてのみ説明された。

4 展示過程からみえるもの

次に、当然ながら展示のリアリティを体験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制約があった。リアリティを教室に持ち込むことは難しいが、リアリティをもたせるための展示過程の提示はできるはずである。李さん一家の展示では「もの」の記録が最も重要な作業である。その放射線状にある李さん一家の外の空間には場を特徴付けるための「もの」が選別され陳列された。異なる選択方法によって置かれ、それによって発する意味が異なる「もの」を吟味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しかし、ここで看過できないのは生活財調査の方法と内容である。図録には李さん一家の生活財の写真データとその背後に隠された詳細なストーリー（名前、保管場所、使用者、使用頻度、購入時期とその価格、その他の経緯など）が記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調査過程に着目することで展示の意味や意図の理解を深め、そこからさらに何が読み取れるかという可能性を広げられる。展示を教室

に持ち込む場合、「言葉」を媒介にする講義の制約について既に述べたが、調査過程と展示過程を読み解くには「言葉」がより有効な側面もある。もちろん、この際にも、視覚的データの提示は重要な役割を果たすのは言うまでもない。図録はまるで人類学におけるフィールド・ノートとそれによって描かれた民族誌の両方を一体化させたもののように映る。民族誌にはその民族誌が出来上がるまでの具体的な過程はなかなかみえてこない場合が多い。図録には詳細で具体的なデータ収集過程と整理されたデータが示されている。そのなかには特定の「もの」から特定の意味づけが行われていく過程も記録として収め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もの」に対する一つの解釈を提示することでその「もの」の背景にその「もの」とかかわりをもつ個人の特殊性、社会的構造、歴史的な厚みなど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側面において図録はテキストとしての多くの可能性を有しているだろう。

5 今後の課題

講義のテキストとして展示図録を用いた一事例を通して、その制約と可能性についてみてきた。事例を通して考察したように、図録を用いた展示の疑似体験にはリアリティが欠けるという問題がある。また、みんぱくで試みられた小・中学校向けの「みんぱく」の貸し出しは教育活動の可能性を広げたものの、大規模な展示の迫力や考現学と生活財生態学という方法に基づいた「もの」の全体像はみせられない。このような問題を少しでも解消する糸口として、バーチャルによる展示体験があげられる。展示過程において行われた綿密な調査とその莫大なデータを用いて擬似博物館、展示を再現することで時間と空間を越えた展示体験が可能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例えば、図録に展示を収めたDVDを付録でつけることで視聴覚教材となる。また、みんぱくのホームページに展示を擬似空間のサイトにして設ける。さらに、技術的に高度で高コストを必要とするものではあるが、移動博物館型のバーチャル・リアリティ機器の設け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展示物の記録や保存のみならず、繰り返し利用できる空間と体験を可能に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次に注目しておきたい課題としては、「特別展」のその後の李さん一家の変化である。「特別展」が行われた際、来館者が大きな関心をもつことの一つは、一切の生活財を提供してしまったその後どうなったのかがあった。「特別展」によって家中の「もの」が全く新しくなり、そこから空間の再編成（祖母はアンパン〔主寝室〕を李さん夫婦に譲った）が行われ、全く新しい「もの」が空間を埋めることで個人の心の葛藤や家族の関係性や役割機能の変化が生じたと李さんの妻の金英淑さんという（国立民族学博物館の食堂での偶然出会った時の会話）。「もの」の存在とその意味について改めて考えざるをえない言葉である。

「もの」を通してある特定の個々人のあり方を覗き込むことを可能にした展示が、一方で「もの」によって個人の日常や家族との関係性を変えられてしまう結果を生んだ。今後、展示を媒介にして生じ得る諸問題——例えば調査・展示する行為、関わる行為、調査する側、される側、「もの」と人間のかかわり方など——をどのように解釈し位置付けていくのが重要な課題の一つである。現在、「特別展」その後の李さん一家の写真展が日本各地で行われている。まだ来館はしてないがどのような主旨の展示になっているのか大変興味深いところである。

本稿では展示を教育の場でいかに活用できるのかを考察する際に、韓国文化の教育動向、テキスト論、表象論、異文化教育のあり方などの重要な概念及び先行研究について言及できなかった。しかし、これらのテーマの概観や吟味の重要性はいうまでも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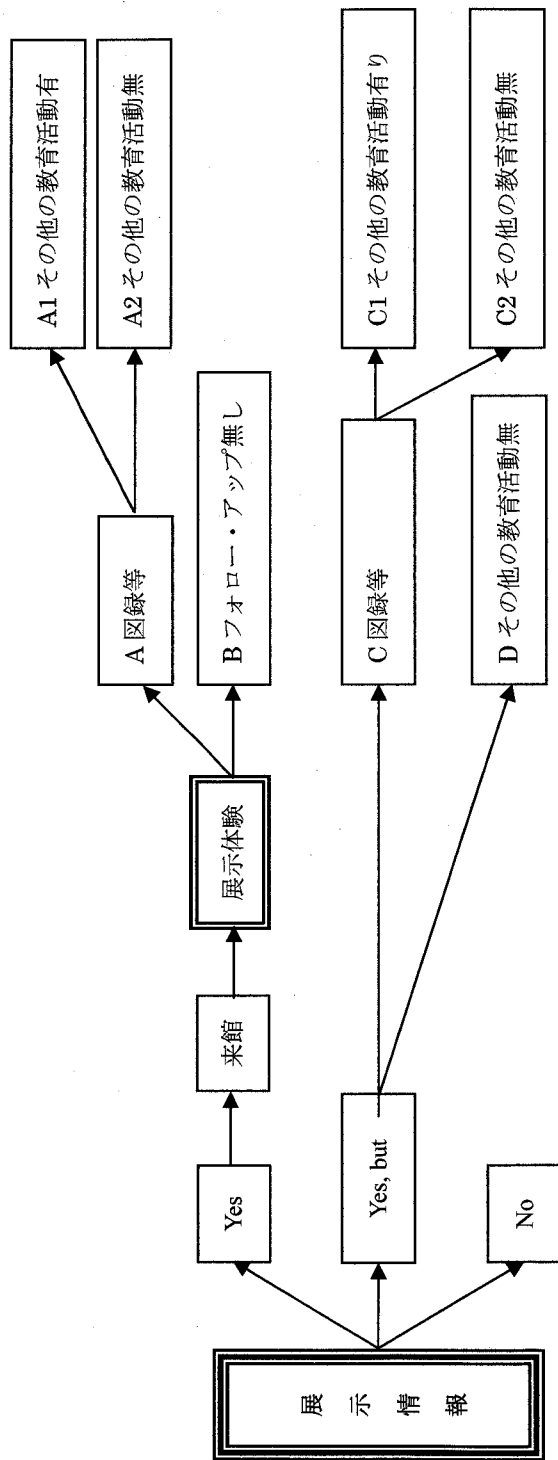


図1 展示を媒介とした教育活動の可能性

도록을 통해 「2002년 서울 스타일」을 살피다

홍 현수

1 들어가며

2002년은, 「닛뽀 · 차, 차, 차」와 「대~한민국」이라는 응원단의 목소리가 귀울음처럼 좀처럼 귀를 떠나지 않는 해였다. 이 월드컵 축구의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국민교류의 해」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다양한 한일교류가 행해진 해이기도 했다. 국제 교류기금의 “한일문화 교류기금 NEWS”에 게재되어 있는 「한일 문화 교류사 연표」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한국문화의 관련행사는 1990-2000년에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부터의 한일교류를 어떻게 방향 지워야 할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보여지지 않는 숨은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일교류 붐 속에서, 문화적 교류를 지향한 국립 민족학박물관에 있어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종래의 이문화 표상의 모형에서 탈출하여, 고현학(考現學)과 생활제 생태학의 방법론을 사용한 「2002년 서울 스타일」은, 전시와 한일교류의 형태에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 주었다. 전시 측의 의도적인 샘플링에 의한 표상이 아닌 이선생 일가의 3200 점이라는 사물을, 집이라는 공간적 문맥으로부터 떼어내지 않은 그대로, 본래의 문맥에 가까운 리얼리티를 가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참가형 전시는 내관자에게 이선생님 일가를 그 모습 그대로, 또 마음껏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리얼리티를 부여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체험을 제공하였다. 이 전시에 있어서, 개개의 전시물과 전시공간에 있는 제 관계성과 중층성을 제시한 것이 해설서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이다. 이 도록에는 생활제 조사방법의 과정과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를 보는 것만으로는 읽어내기 힘든 조사과정과 그 분류방법이, 도록을 음미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전시물에는 개인, 사회, 공간, 시간 등의 제 관계성이 응축되고 표상되어 있다. 한편, 도록은 그 「사물」에 숨어있는 응축된 제 관계성을 해동하여, 상대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다.

전시개최를 위해 행해진 공동연구회를 통하여, 전시과정에 약간이지만 관계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살리고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특별전의 도록을 교육의 현장에서 이문화 이해의 텍스트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문화 이해의 텍스트의 대상으로서 「특별전」의 도록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하와 같다.

① 현대 한국의 생활문화를 테마로 한 「2002 년 서울 스타일」은, 한일의 문화적 교류의 일환으로서 개최되었다. 문화표상으로서의 전시는, 시대성, 지역성, 정치성, 특수성, 보편성 등의 제 개념이 응축되어 있어, 그것들을 읽어 내는 소재로서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이 표상으로부터 현대 일본에서의 한국과의 교류의 형태를 유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② 박물관의 탄생과 함께 전시장은 「사물」을 매개로 한, 열린 교육현장으로서 인식되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박물관에 있어서의 전시는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그림 1 은 전시를 매개로 한 교육활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물관에 와서 전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오고 싶었으나 어떤 이유들로 올 수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보완·보충을 위해, 전시자료를 사용한 교육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전시 도록의 사용가능성이 보인다.

2 전시를 교육의 장소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전시 도록을 텍스트로서 사용해 본 사례를 기초로 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3 년간, 도쿄 근교의 4 년제 대학에서 한국문화에 관해 강의를 담당하여 왔다. 국제경제학과의 3, 4 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 강의는, 유니버시크의 이문화 이해의 입문강좌이다. 올해는, 중국, 폴란드, 러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 2 회의 강의 스케줄로 되어 있었다. 2 회라는 한정된 시간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어려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필자의 연구영역인 한국의 가족관계와 영화에서 보여지는 민족주의의 표상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여 왔다. 그러나, 2002 년도는 월드컵 축구의 한일 공동개최와 함께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하는 시간적 타이밍도 겹쳐져, 「특별전」을 채택하게 되었다. 전시장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강의의 일환으로서 전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거기서 전시의 해설서인 도록의 자료를 실물 투영기에 비추어, 종이인형극 방식으로 전시의 의사 체험적인 강의를 하게 되었다.

3 응축된 「사물」의 표상과 그것을 읽어내기 위한 「사물」

전시의 텍스트화에는, 이하와 같은 제약이 생각되었다. 우선, 전시, 도록에 있어서

의도된 것과는 또 다른 문맥이 발생한 점이다. 전시에서는 「사물」에 무엇을 이야기하게 할지를 상징하고, 전시물을 선택하여 간다. 「사물」을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2002년 서울 스타일」에서는 전시장을 중심으로 스텝에 의한 면밀한 기록·조사에 근거하여, 이씨 일가의 공간이 있는 그대로 재현되었다(자세한 구도는 도록 참조). 전시장은, 1층의 중심부, 1층의 주변부, 2층, 지하, 앞뜰이라는 5개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1층의 중심부에 있는 이선생 일가의 사적 공간을 방사선상으로, 가족 개개인이 관계되어 있는 외부에 있어서의 일상의 공적 공간이 펼쳐져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2층에 있어서 현대의 한국사회의 상징적인 장소와 「일생」이란 시간 축에 있어서의 공간이 설치되었다. 이선생 일가의 전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주변, 2층, 지하의 민박시장, 그리고 앞뜰의 광장의 공간이 의미 지워져 있다. 이런 박물관의 공간이란 문맥은 이씨 일가를 현대란 한정된 시간과 특정 개인의 일가라고 하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상대적 효과를 풍기고 있다.

이런 전시장의 문맥은, 도록에서는 지면이란 공간을 통해 이선생 일가의 생활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일상의 사진을 이용해 나타내고 있고, 또한 32개의 칼럼으로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을 보충·상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실제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공간이 전시장에, 한편으로는 도록의 지면에, 그리고 또 한 교실의 식물 투영기에, 원래의 문맥으로부터 몇 번이고 바뀌어 놓여지는 것이다. 특히 교실이라는 문맥 속에 놓여진 것으로 이선생 일가의 생활재는 또 다른 의미를 발신하도록 된다.

「한국문화」의 강의에 있어서는 도록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강의 내용은, 이선생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례로부터 한국의 가족구조의 특징에 초점을 좁히게 되어, 이 점은 전시의 주된 의미와는 달라지게 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시·도록에서는, 그 「사물」에 특정의 개인과의 관계가 응축된 그대로 표상되어 있어, 그 응축된 의미를 읽어내는 실마리를 주변의 전시 혹은 칼럼이나 일상의 사진 등의 「사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비하여, 강의에서는 사례로서의 생활재는 「사물」을 통해서 읽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행하는 매개로서의 「말」을 통해서 읽어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시와 도록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의 강의 내용에서는 생활재를 통해 가족구조를 엿보도록 방향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물」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응축된 다양한 의미가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만 설명되었다.

4 전시과정으로부터 보이는 것

다음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전시의 리얼리티를 체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제약이 있었다. 리얼리티를 교실에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만, 리얼리티를 지나게 하기 위한 전시과정의 제시는 가능할 것이다. 이선생 일가의 전시에서는 「사물」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 방사전상에 있는 이선생 일가의 외부의 공간에는 장소를 특징 지우기 위한 「사물」이 선별되어 진열되었다. 서로 다른 선택방법에 의해 놓여져, 그것에 의해 발산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사물」을 음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생활재 조사의 방법과 내용이다. 도록에는 이선생 일가의 생활재의 사진 데이터와 그 배후에 숨겨진 세세한 이야기 (이름, 보관장소, 사용자, 사용빈도, 구입기간과 그 가격, 그 외의 경위 등) 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 착목하는 것으로 전시의 의미와 의도의 이해를 깊게 하고, 그로부터 더욱이 무엇이 읽어내질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전시를 교실에 가지고 오는 경우 「말」을 매개로 하는 강의의 제약에 관해서 이미 말했지만 조사과정과 전시과정을 읽어내는 것에는 「말」이 보다 유효한 측면도 있다. 물론 이 때에도, 시각적 데이터의 제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도록은 마치 인류학에 있어서의 필드 노트와 그것에 의해 그려지는 민족지(ethnography)의 양쪽을 일체화시킨 것과 같이 비춰진다. 민족지에는 그 민족지가 완성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은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록에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정과 정리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는 특정의 「사물」로부터 특정의 의미부여가 행하여져 가는 과정도 기록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그 「사물」의 배경에 그 「사물」과 관계를 가진 개인의 특수성, 사회적 구조, 역사적인 두께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도록은 텍스트로서의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후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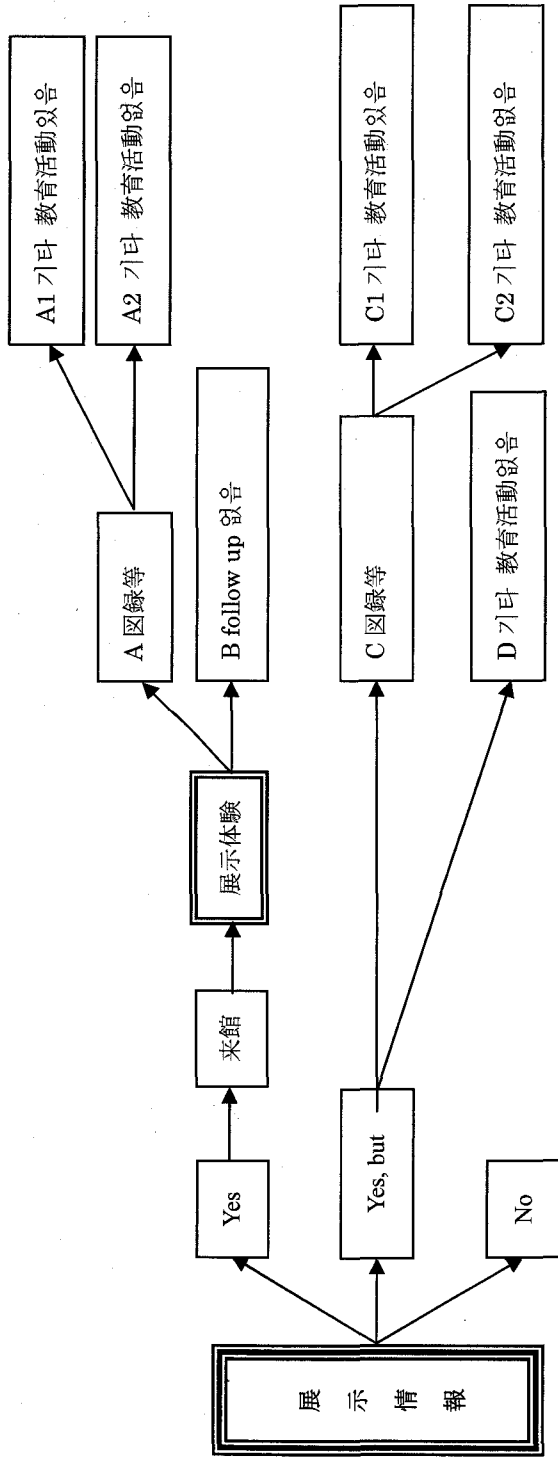
강의의 텍스트로서의 전시 도록을 사용한 한 사례를 통해서, 그 제약과 가능성에 관해 보아왔다. 사례를 통해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도록을 사용한 전시의 의사체험에는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박에서 시도한 초등·중학교용의 「한국 책」의 대출은 교육활동의 가능성을 넓히기는 하였으나, 대규모의 전시의 박력이나 고현학(考現學)과 생활재 생태학이란 방법에 기초한 「사물」의 전체상은 보여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실마리로서, 가상에 의한 전시체험을 들 수 있다. 전시과정에 있어서 행해진 면밀한

조사와 그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사(疑似) 박물관, 전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전시체험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 도록에 전시를 수록한 DVD를 부록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시청각교재가 된다. 또, 민박의 홈페이지에 전시의 의사공간의 사이트를 설치한다.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동 박물관형의 가상 리얼리티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전시물의 기록과 보존뿐만이 아니라, 반복 이용 가능한 공간과 체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과제로서는, 「특별전」의 그 이후의 이선생 일가의 변화이다. 「특별전」이 행해진 때 내관자가 큰 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가, 모든 생활재를 전부 제공해 버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이었다. 「특별전」에 의해 집 안의 「사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거기에서 공간의 재편성(할머니는 안방을 이선생 부부에게 양보했다)이 이뤄지고, 완전히 새 「사물」이 공간을 채워 가는 것으로 개인의 마음의 갈등과 가족의 관계성, 역할기능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선생의 부인인 김영숙씨는 말한다(국립 민족학박물관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의 대화). 「사물」의 존재와 그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사물」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개개인의 모습을 들여다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전시가 한편으로 「사물」에 의해 개인의 일상과 가족과의 관계성을 변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이후, 전시를 매개로 하여 생길 수 있는 제 문제——예를 들어, 조사·전시하는 행위, 관련하는 행위, 조사하는 측, 조사되는 측, 「사물」과 인간의 관계 방법——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위치시켜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현재, 「특별전」 이후의 이선생 일가의 사진전이 일본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으나 어떤 의미의 전시가 되어 있는지 무척 흥미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전시를 교육의 장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찰하면서, 한국문화의 교육동향, 텍스트론, 표상론, 이문화 교육의 형태 등의 중요한 개념 및 선행연구에 관해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테마의 개관이나 음미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도 1 전시를 매개로한 교육관 등의 가능성